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경제위기

김 철 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는 고도로 확대된 시장경제입니다. 상품경제의 초기에는 로동생산물만이 상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고 사회적부패가 심화되면서 로동생산물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환의 대상으로 되지 않던 물건들, 지어는 비물질적인것까지도 매매의 대상으로, 상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522페이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모든것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부자본이 리자라는 《가격》을 가진 특수한 《상품》으로 되는것처럼 리자나 배당금 또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일정한 리득을 가져다주는 모든 금융거래수단들이 금융상품으로 되고있다.

금융상품은 금융시장들에서 유통되는 금융거래수단의 총체이다. 금융상품은 그 내용으로 보아 금액, 인도조건, 기한에 대한 법적규제를 전제로 하는 금융거래대상이며 그것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금융상품에는 금융기관들과 그 거래자들사이에 거래계약이 맺어지는 예금, 신탁, 채권, 각종 보험관련상품 등이 있다.

예금이나 신탁, 보험, 채권은 그 참가자들에게 약속된 기일에 원금과 추가적리득을 얻는 자금운동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금융상품은 그자체가 재생산순환과 유리되어 발행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일정한 보유소득이나 편차리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그 거래에서 고도의 기생성과 투기성을 가진다.

오늘 세계적으로 금융시장들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량은 계속 증대되고있으며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있다.

세계적으로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게 된것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파잉금융자본이 형성되고 환자파동, 리자률파동 등 금융위기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자본을 집중하여 독점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유가증권발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대독점들이 방대한 금융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재생산과정과 유리된 파잉금융자본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부터 현실자본과 유리되어 팽창된 파잉금융자본은 자본리득을 노리고 새로운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유통하면서 다종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수탈과 지폐람발을 통하여 독점자본의 수중에 방대한 파잉금융자본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자본수출을 대대적으로 강행한것과 관련하여 국제금융시장에 더 많은 파잉금융자본이 차넘치게 되었으며 이것은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내게 한 계기로 되었다.

1970년대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환자파동, 리자률파동 등 금융위기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환자파동, 리자률파동 등 금융위기가 꼬리를 물고 일어난것과 관

런하여 대독점들의 수중에 보유된 파잉금융자본은 종전의 금융상품만으로는 자본리득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을뿐아니라 그 자본의 가치를 잃을 위험도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파잉금융자본의 소유자들은 이러한 사태에서 벗어나보려고 수많은 금융거래 수단 즉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냈다.

세계적으로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게 된것은 다음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의 자유화와 증권화가 적극 추진된것과 관련된다.

우선 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자본주의금융거래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의 자유화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사이의 업무내용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금리의 자유화, 금융상품발행과 거래에서의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금융투기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며 화폐자본의 소유자나 수요자들이 금융거래과정에 경쟁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낼수 있게 하였다.

금리의 자유화는 리자률의 차이를 노리고 각이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리자률설정에 대한 규제제도의 철폐는 은행으로부터 증권시장에로의 예금의 류출을 막고 은행의 대부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추진되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1970년대 이후 파잉류동성화폐자본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증권시장에서 류통되면서 증권시세를 끌어올리고 증권거래를 통한 리유흥득의 기회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예금리자률은 규제리자률에 의해서 낮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있었으며 예금자들은 보다 높은 리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있는 자금은 물론 은행에 맡겼던 예금까지도 모두 찾아 증권구입에 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을 막기 위하여 예금에 대해서도 자유리자률을 적용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초기에 이것은 리자률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실시되는 조건에서 여러가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세계에서 첫 자유리자률예금으로서 양도성에 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들이 나오게 되었다.

금융상품은 금융업무의 자유화와 관련하여서도 더욱 다양해졌다.

원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불안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밑에 금융기관들사이의 업무활동분야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그러나 금융의 자유화실시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사이에 존재하던 이와 같은 금융업무령역에서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은행들이 예금, 대부업무는 물론 증권거래업무도 겸하게 되었고 증권회사들에서 증권업무와 함께 예금, 대부활동이 허용되었으며 이것으로 하여 여러가지 금융상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원래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엄격히 분리되어있던 지난 시기에는 은행과 증권회사들에서 다루는 금융상품들이 철저히 구별되었으며 그만큼 금융시장들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들도 제한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자본주의금융시장들에서는 은행과 증권회사들사이의 업무분야에서의 호상침투가 다른 금융기관들에서보다 더 맹렬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로

부터 국채정기에 금구조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금융의 증권화를 통하여 금융상품들이 급격히 팽창되었다.

금융의 증권화의 추진으로 자본주의 금융시장들에서는 금융거래의 압도적부분이 증권을 통하여 진행되게 되었다.

금융의 증권화는 곧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금융거래이다. 증권거래를 통한 직접금융방식은 금융자금을 기동성있게 움직여 더 큰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적게 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증권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자금소유자는 임의로 증권을 구매 또는 판매할수 있고 자금운용에서 기동성을 보장하여 경기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높은 투기적이익을 얻을수 있게 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증권을 통한 금융거래규모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대규모기업들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증권거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금융의 증권화가 추진되면서 대규모기업들뿐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도 증권거래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장기자금뿐아니라 단기자금까지도 증권의 발행과 판매를 통하여 조달됨으로써 금융상품이 더욱 다양화되게 되었다.

한편 기업들이 증권거래에 나서는 조건에서 은행들이 거래자를 잃고 자금운영난에 빠지게 되면서 은행들도 증권시장에 침투하여 증권거래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채권, 채무를 증권형태로 류동화, 상품화함으로써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더욱 다그쳐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금융시장들에서는 채권, 채무를 증권의 형태로 류통시키는 금융상품들이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발행되고있다.

자본주의 금융시장들에서는 여러 종류의 증권들이 증권화되면서 새 종류의 금융상품이 나오면 그에 대항하여 다른 금융상품이 나오는 식으로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그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금융의 자유화와 증권화에 의한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경제를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는듯이 떠벌여왔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자본주의사회의 기생성과 투기성, 무정부성의 심화의 반영으로서 자본주의경제를 더욱더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금융거래에서 그 어떤 혁신이나 발전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제위기속에서 금융거래과정에 더 많은 리운을 얻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작물로서 자본주의위기의 산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자본주의나라들을 경제위기로부터 구원할수 없을뿐아니라 새로운 금융위기를 초래하면서 자본주의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오늘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의제자본을 더욱 팽창시키고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사이의 분리를 촉진시켜 자본주의경제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경제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우선 의제자본을 더욱 팽창시켜 거품경제를 조장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

의제자본은 실질적가치는 가지지 않으면서도 그 소유자에게 추가적소득을 가져다주

는 유가증권형태의 자본이다.

의제자본과 현실자본의 합리적균형은 그것이 현실자본의 운동을 반영하면서 의제자본의 운동과 현실자본의 운동방향이 일치되는것을 통하여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의제자본이 재생산과정에 제기되는 실제적수요에 따라 투자되고 그의 시세도 그의 보유로 하여 차례지는 소득의 규모에 의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증권실현에서는 보유소득보다 거래소득 즉 판매소득의 의의가 더 커지고있다.

증권의 보유소득은 해당 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차례지는 리익배당소득이나 리자소득으로 규정되며 거래소득은 증권이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으로 규정된다. 보통 증권거래과정에 거래자들이 얻는 수익은 이 보유소득과 거래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보유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증권, 장기국채와 같은 장기증권의 보유동기로 되며 거래소득은 단기증권의 보유동기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파잉류동성화폐자본이 급격히 늘어나고 여러가지 형태의 금융상품이 증대되면서 단기증권은 물론 장기증권도 그 시세를 크게 변화시켜 거래소득을 늘이고 단기류동성자본의 투자대상으로 되게 하고있다.

금융의 증권화가 진척되면서 증권시장으로 흘러드는 방대한 화폐자본은 증권시세를 높이 끌어올려 보유소득의 의의가 줄어들게 하고있다. 특히 금융의 자유화와 증권화의 흐름을 타고 본래의 금융자산뿐만아니라 그를 여러가지로 변형시킨 각종 금융파생상품들도 거래됨으로써 금융상품의 거래는 보유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격차이를 리용한 편차리득을 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금융시장거래의 증대와 증권시세의 상승은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자본으로 하여금 그 거래자들에게 가격변동에 따르는 편차리익을 얻을수 있게 하며 실제적인 재생산순환으로부터 리탈되게 하였다.

생산적투자처를 찾아 실물경제에 흘러들지 못하는 방대한 파잉화폐자본의 유리한 투자시장은 바로 증권시장이다.

자본주의기업체들에 있어서도 파잉자본을 생산과 경영활동이 아니라 증권시세상승시에 손쉽게 치부하려고 증권조작에 많은 자금을 탕진하는것이 오늘의 추세로 되고있다.

기업체들은 경영결과에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자기 주권을 다량구매하는 등 자기의 주권시세를 올리려고하였으며 투자자들은 뛰어오르는 증권시세로 표시되는 자산의 증가에 현혹되어 시세가 높아지는 증권과 부동산구입에 많은 빚을 내어 화폐자본을 소비하였다. 이것은 현실자본의 상대적파잉이 존재하는 속에서도 의제자본을 더욱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의제자본의 팽창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의제자본팽창 그자체가 유가증권발행의 목적으로 된다. 기업들은 현실자본확대를 위해 주권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를것같이 보이는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판매소득을 얻으려고 하였다.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많은 화폐자금을 보유하고있는 기관투자자들도 증권호경기에 끼여들어 유가증권으로 표시되는 자산의 규모를 늘이고 증권판매소득을 얻기 위하여 증권구매에 나섰다.

증권시장의 호경기는 마지막에는 투기적성격이 강화되면서 증권거래 그자체가 목적

으로 되고 의제자본이 현실자본으로부터 크게 유리되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제자본의 팽창은 그 수축으로 바뀌고 증권시세상승은 폭락으로 끝나는것이 의제자본순환의 합법칙성이다.

의제자본의 팽창, 금융상품의 시세폭락은 금융체제를 엄청난 채무위기에 몰아넣고 자금순환을 동결시켜 실물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들었다.

금융상품가격의 폭락으로 사라지는 금융상품자산의 가치부분은 그대로 신용금융기관들의 손실로 혹은 상환되지 못하는 채무로 재현되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또한 실물경제로부터 유리된 방대한 화폐자본이 투기적소득을 추구하여 금융시장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순환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금융활동이 생산과 유통 등 실제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자금유자, 금융적봉사의 사명에서 멀리 벗어나 그자체가 리운을 산생시키는 분야로 간주되어 제멋대로 진행되게 한다. 그리하여 금융분야에서의 자금순환이 현실적인 재생산순환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실물경제의 운동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모든 금융거래가 경제장성률, 국제수지상태, 실업률, 물가변동등과 같은 경제적지표에 따라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리자률과 증권시세, 환률과 같은 금융지표자체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경제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기업의 리운이 줄어드는 조건에서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금융상품의 가격은 뛰여오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있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 투기적인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그의 폭발적인 확대는 자본주의에 그 어떤 변혁이나 변영을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와 통화금융적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우리는 끊임없는 리운추구와 생존경쟁의 산물인 금융상품의 다양화가 자본주의경제에 미친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잘 알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활동을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금융상품, 의제자본